



환영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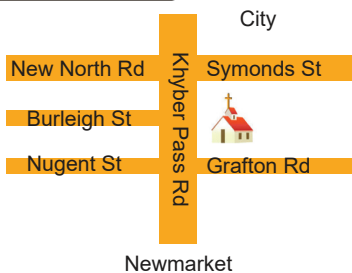
갈보리소식

1. 선교학교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저녁기도회와 함께 전 교인 기도시간으로 갖습니다(새벽기도회는 없습니다).
2. 전교인 친교를 위한 배드민턴 대회가 오는 6월 6일(월) 오후 1시에 Epsom의 Badminton Hall에서 있습니다(ABA 코트 1-6번, 주소: 99 Gillies Ave. Epsom).
시간: 12시30분~3시
준비물: 물, 간편한 복장, 운동화 *배드민턴 라켓이 많이 필요합니다.
경기방식: 청백팀으로 나누어서 복식경기 10점 1세트, 셀프콜(각팀별로 심판없이)
3. 피택 향존 직분자 훈련이 계속 됩니다(오후 4시). 이번 주 훈련은 '성경 2'입니다.
4. 오늘 예배후 윌레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순서:찬송, 기도, 안건처리).
5. 성찬주일(6월 26일)에 세례(입교)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 받을 성도는 신청 바랍니다.
6. 갈보리 성경릴레이 15번째 김정수집사 완독했습니다.
7. 선교학교에 간식 준비한 성도, 떡볶이 떡으로 섬겨주신 성도의 가정 감사드립니다.
8. 이태한목사는 이번 주 하늘그림교회(인진우목사 시무)에 수요예배 인도차 다녀 옵니다.



갈보리 전교인 성경통독 릴레이: 15회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주일 PM 1:00
- 청년모임 주일 PM 3:00
-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 아 동 부 주일 PM 1:00
- 중고등부 주일 PM 1:00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 이 태 한
- 부 목 사 : 심 창 진
- 부 목 사 : 이 성 철

설교 방송

- www.youtube.com/calvaryorgnz
- www.koreaniptv.co.nz



18권 23호

2016년 6월 5일 주일

2016년 표어

거룩 (롬12:1)

부흥 (마5:8)

나눔 (잠11:24,25)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1.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2. 교회학교를 일으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3. 선교와 전도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4.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시편 118:24-25,28

◎찬 송 기뻐하며 경배하세 64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나의 죄를 씻기는 252장

대표기도 박일영 장로

성경봉독 로마서 7:7-13

찬양대 찬양 마음 다하여 찬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율법도 은혜입니다/
이태한목사

찬 송 내 주의 보혈은 254장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살아계신 주(1,2절)

◎축 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6월 교회일지

친교모임: 6월 6일(월요일) 예 배 안 내: 손조훈/김순자
금요저녁기도회: 6월 10일(금요일)새신자안내: 박혜숙/이정인
선교학교 증강: 6월 24일(금요일) 최희숙/
성찬주일(세례식): 6월 26일(주일)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공동체주관 수요일예배: 6월 29일 주 방 봉 사: 윤경례/박제란
(수요일) 김명옥/유현남
민경아

6월 예배봉사자

기도순서

이번주 애찬: 박후임 집사
다음 주일: 박병민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김준섭 형제
6월 15일 수요일: 민선희 집사
6월 15일 애찬: 박현주 집사
6월 19일 주일: 이규임 권사
6월 19일 청년부: 김정훈 형제

청년 모임

오후 3시

소그룹 나눔과

성경공부

기도 / 권우석 형제

수요일 예배

찬양 수요 찬양단

기도 문일숙 집사

성경봉독 시편 123:1-4

설교 긍휼을 베푸소서
/심창진 목사

광고 인도자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주기도 다같이

금주의 기도제목

1.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 보내는 교회가 되도록.
2. 처음 사랑과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계속되어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3. 계절의 변화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역동적인 거울을 보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선교와 중보기도

선교란 이번 주는 베트남 이지양, 한진숙 선교사 소식입니다.

안녕 하세요.

숨이 막힐 듯 더운 날씨 속에 땀으로 범벅하며 한주간의 의료봉사를 통해 사역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중보로 은혜가운데 복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까오란을 시작으로 안퐁, 푸꽁에 이어 다시 새로운 지역 미안이라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교회를 통해 일을 하게 되고 사역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4개성 36개 교회의 목회자부부 세미나를 “지역사회에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3박 4일 동안 봉타우에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사회사업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며 토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 푸꽁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 그 간증을 올려봅니다.

저는 동탑성 땀농군 푸끄영 면에 있는 푸끄영 교회의 호안부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42년 되었고 재적 150명 정도 입니다. 매주 60명~70명 정도 예배합니다. 2014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사회봉사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전도를 해도 전처럼 지방정부(공안)의 반대(핍박)를 받지 않을만큼 지역 공동체로부터 호감을얻게 되었습니다. 작년에(2015년) 지방 정부에 전도 목적으로 면의 문화회관을 빌리려 했을 때 기꺼이 빌려주었습니다. 그때 1500명 참석했는데 정부에서 오토바이를 지켜주었고 성경과 전도책자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할 만큼 교회와 지방정권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악령에 잡혔는데 고치지 못하다가 우리교회서 치료받고 지금은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 일들 덕분에 성도들이 전에 보다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 전도 프로그램이 준비되면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초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기도제목

1. 동탑성 지역의 교회와 목사들이 정부 관계자들과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2. 지혜주시고 성령에 충만하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